

# 소적새 마을서 매주 찬불가 지도

## 신행현장

### 성불원 바라밀회 유영서 회장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18일 오후 1시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2리 치악산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소적새마을(원장 현각스님). 법당에서 풍금 소리와 함께 찬불가가 울려나온다.

몸과 마음 어느 부분이 아픈 소적새마을 가족 50여명(전체 인원 211명)이 참석 한 가운데 삼귀의와 함께 시작된 '찬불가 배우는 법회'는 사홍서원과 산회가가 끝날 때까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를 부르기 전에 노래 선생님 유영서(50) 보살은 부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여러분, 찬불가를 부르는 이유는 부처님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도 부처님처럼 되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불러야 해요. 알겠지요?"

"네에, 선생님." 소적새 가족들은 비록 발음이 서툴고 틀린 부분이 많아도 열심히 손뼉을 치며 찬불가를 배운다. 전자 오르간의 반주는 하반신이 불편한 마을 식구 차철주 씨가 맡아 연주실력을 발휘한다.

선생님은 법회 의식문들을 비롯해 '부처님께 바칩니다' '불자 행진곡' 등 이제까지 배운 찬불가를 처음부터 하나씩 부르게 한다. 자주 반복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찬불가 중간중간엔 흥을 돋구기 위해 '송아지' '소양강 처녀' 등 동요와 가요를 양념으로 가르친다. 즐겁게 배우도록 해 빠지는 원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 "순수한 마음들과 만남

### 오히려 제가 배워요"

### 20년째 재소자 교화도

원주 성불원(주지 현각) 바라밀회 회장인 유영서 보살이 소적새마을에서 찬불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이 때부터 유 회장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원주시내에서 운영하는 꽃집 문을 닫아둔 채 소적새마을로 달려온다.

"가족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 주어서 오히려 신이 나요. 나를 따라주는 그들의 끈고 순수한 마음을 느낄 때면 제가 오히려 배우고 가요." 유 회장이 찬불가 지도에 나선 것



유영서 바라밀회장(좌)이 있는 사람들은 매주 수요일 소적새마을에서 찬불가를 지도한다.

은 소적새마을이 처음이 아니다. 98년 7월 바라밀회를 창립할 때부터 시작한 원주교도소 불자 재소자들을 위한 자매법회는 찬불가는 물론 경전 및 기초교리 공부, 발원문 읽기 등과 어우러진 법음(法音) 전파의 일환이었다.

20여년간 원주교도소 재소자 교화에 매진해 온 현각스님의 원력에 감화된 유 회장은 매달 첫째 월요일 종교집회, 첫째·넷째 금요일 자매법회를 회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금강경을 함께 읽고 불교교리도 지도할 정도로 알찬 신행을 펼치고 있다.

매주 사찰법회에서 합창단원으로 음성공양을 하면서 보름마다 떠나는 사찰순례의 일정을 준비하는 한편 틈틈이 원주시립복지원에서 찬불가를 지도하는 유 회장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새벽예불과 2시간에 걸친 금강경,

지장경 독경에 이은 하루하루의 보살행. 그 원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남편과 두 아들의 헌신때문이라면서도 유 회장은 자신이 지도하는 재소자들이 불자로 거듭나는 모습에 더욱 힘을 얻는다고 말한다.

"오늘(18일) 생일을 맞아 한 재소자로부터 여섯 잎 클로버가 든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는데, 이럴 때면 그동안의 피곤함이 싹 가셔요. 이것이 보람이고 수행이 아닌가 생각돼요."

지난 봄에 이은 가을에 예정된 모범 재소자 사회견학, 오는 10월 원주교도소 찬불가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소적새마을 가족들의 찬불가 지도에 정성을 다하는 유 회장. 봉사활동 때문에 바빠 꽃가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입이 줄어도 법음을 전하는 그 시간들은 더욱 소중하기만 하다. 소적새마을=033762-9870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생활속의 불교

### 모든 고통은 내 안에서 자라난다

누군가 나를 꾸짖거나 비난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가만히 귀 기울여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화내고 불쾌하게 생각하며 반발하는가. 아마도 후자이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화를 내고 맞서는 순간, 내 마음은 부글부글 끓는 화방지옥이 된다. 반면에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 말을 귀담으로 삼을 줄 안다면 그 순간에 그도 부처, 나도 부처가 된다. 그는 내 중생심을 꾸짖으니 필경 부처일 것이고, 나는 그것을 거울로 삼으니 더는 중생심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불심으로 돌아선 것이 된다.

우리는 삶 속에서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그 원인을 살피려 하지 않는다.

다. 고통이 진정 벗어나려면 그 고통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살피고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뿌리채 뽑아내야 한다. 그런데 대개 원인을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고 쉽게 누구의 탓으로 돌리려고만 한다.

만물은 나를 포함하여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게 와서 부딪히는 경계란 없이 없고 무수하다. 그것을 이루 다 어떻게 뽑아 버리겠는가. 내 마음 안에서 원인을 찾고 그것을 제거해야만 한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세상이 변할 것이고 변해보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마음에 번뇌도 고통도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것을 부둥켜 안고 놓지 않는다. 그래서 하는 일

마다 번뇌가 좇아오고 고통이 깃든다. 나만을 사랑하는 마음은 번뇌의 씨앗이요 고통의 뿌리인 것을 모른다.

모든 고통과 기쁨은 밖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싹트고 안에서 자라난다. 그것은 바깥에서 내게로 부딪쳐 오는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행복이란 잘나고 못난 사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잘났다는 생각, 못났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상대의 언행을 나의 거울로 삼고, 나를 공부시키는 좋은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를 사랑하기까지 한다면 그런 사람의 삶에 번뇌와 고통이 어떻게 따르겠는가. 龍眼

## 주제가 있는 법문

### "서로 아상 내세우니 불화 인욕바라밀 실천합시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상을 내세웁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빨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함경>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진리에 대하여 아직 밝게 알지 못하였으면 마땅히 힘써 방편으로 왕성한 욕심을 일으켜 밝게 알기를 배워야 하느니라'

사람들은 흔히 내가 저승갈 때 재물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 재물 많이 쌓아놓았자 무엇하느냐 인욕으로 말하지만 실제로 욕심을 버리지는 못합니다.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가 언젠가 설법을 나갔다가 박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돌을 던지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라훌라는 돌아와서 부처님께 다시



령관스님

서울 무량정사 주지

### 108배·3천배·1만배

### '나' 낮추는 수행방편

는 그 지역으로 법문을 하러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박해하면 어찌 하려느냐?" 또 다른 곳으로 가지요. "그곳에서도 박해하면?" 그제서야 라훌라는 부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인욕행의 제일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입이 닳도록 강조하신 것이 욕심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8배, 3천배, 1만배 등 절을 많이 하는 것은 아상을 누르고 인욕심을 기르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유교경>에도 "참는 미덕에는 지계, 고행도 미치지 못한다. 능히 참음을 행하는 자는 이름하여 대인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행운이 오길 기대하고 늘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보면 매사를 자기 위주로 생각하거나 결정짓지 말고 자존심을 억제하고 욕심을 억제하고 짜증을 억제해 보십시오. 만사가 잘되고 언제나 행복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가 인내심을 갖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하고 늘 이기려고만 한다면 결국 부부간에 화목이 깨져 이혼이라는 파국이 올지도 모릅니다.

한 때의 울분과 한 때의 성냄을 참지 못하면 많은 실수가 있게 되고 그것은 악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참음으로써 우리 가정이 원만해지고 그에 따라 이 사회가 밝아지고 나라가 평안해지며 온 세계가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참선을 하거나 기도정진하는 것도 인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 참선과 기도를 하는중에 생기는 마를 이겨가는 것도 역시 인욕바라밀을 수행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욕바라밀은 불교의 기본 행이며 인욕바라밀을 행하지 못하면 불교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시바라밀보다 실천하기 어렵고 힘든 바라밀이 인욕바라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욕은 힘든 수행종 하나입니다. 보시바라밀이 으뜸이라 하고 보시를 중요시 하나 인욕바라밀은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바탕이 되고 인욕을 하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화합이 잘 됩니다.

역대 조사 선사들께서도 모두 참고 inne하는 데서 도를 얻었고 불성의 자리를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우바세계경>에서는 "인내는 보리의 바른 인(因)이다. 아득다라삼삼보리는 인내의 결실이다"고 했습니다.

참을 줄 아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으며 남탓을 하지 않으며 또 탐욕심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인욕바라밀을 뜻으로 삼아 열심히 정진한다면 언젠가는 열반의 저 언덕에 도달할 것입니다.

## 신행캘린더

### 7월 27일 (금)

■반세계화운동 특강=(사)좋은벗들은 오후 7시 30분 정동회관 3층 강당에서 민주노동당 박하순 씨를 초청 '2000년대 반세계화운동의 지향점과 논리' 주제 강연회를 마련한다. (02)587-8996

■영성창작캠프=양정청소년수련관은 29일까지 경남 합천청소년수련관에서 '2001 청소년 영성창작캠프'를 개최한다. (051)868-0750

■영남불교대학 여름 수련회=영남불교대학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한다. 김포 해방사에서 실시되는 이번 수련회는 사경대법회, 구법행, 교리퀴즈, 서울강 및 불국사 답사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053)474-8228

■여름불교학교=진주불교회관은 29일까지 고성 옥천사 보리수 쉼터에서 '부처님 마음달기'를 주제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8회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055)747-0108

### 7월 28일 (토)

■시민 강좌=전북불교대학은 8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불교대학 큰법당에서 '회화의 세계'를 주제로 '시민위향 특별강좌'를 실시한다. (063)226-7878

■청소년불교학교=금강경독송회는 30일까지 경주 서라벌에서 어린이 불교학교를, 포항 금강정사에서 청소년 불교학교를 각각 개최한다. (02)742-0172

### 7월 29일 (일)

■강화 답사=터사랑은 강화지역 유적을 순례하는 답사를 떠난다. 당일 오전 7시 30분 양재에서 출발하는 이번 답사 코스는 동막해수욕장 갯벌 탐사→부근리 고인돌→갈곶돈대→강화역사관. (02)725-1284

### 7월 30일 (월)

■우란분제 2재=능인선원은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우란분제 2재 인제식을 봉행한다. 회향은 9월 2일. (02)577-8500

■청소년여름캠프=정도회는 8월 5일까지 문경정도수련원에서 청소년을 위한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02)587-8990

### 8월 2일 (목)

■대불련 여름대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6일까지 충남 홍성 인근에서 '깨어있는 대학생이 아름답다'를 주제로 여름대회를 개최한다. (02)732-0239

#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스님의

## 생활속의 기도법

여러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값 3,500원

일타스님의 기도성취 영형당 모음집

『기도』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형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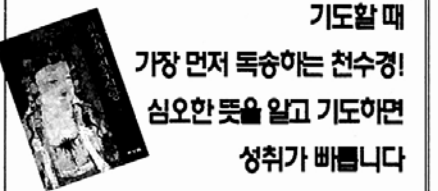
일타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남국선원장 해국스님께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엮은

##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스님의

##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제, 낙타야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 참회·참회구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뒤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끈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가는데 보람이 참회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실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이 책을 읽고,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 는 물꼬를 비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X 6판 / 값 3,500원

- <구성>
- I 업장과 참회
  - II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 III 절을 통한 참회
  - IV 참회명찰
  - V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 VI 이참법과 배승유점참회

영가천도를 위한 지침서

지장신앙·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 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안행복, 대해탈가 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축원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에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찬,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